

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

2020. 7. 6.

목차

1. 오픈뱅킹

- ✓ 오픈뱅킹 개요
- ✓ 국내 오픈뱅킹의 특징

2. 운영 현황

- ✓ 그간의 운영결과
- ✓ 이용 현황

3. 현재 추진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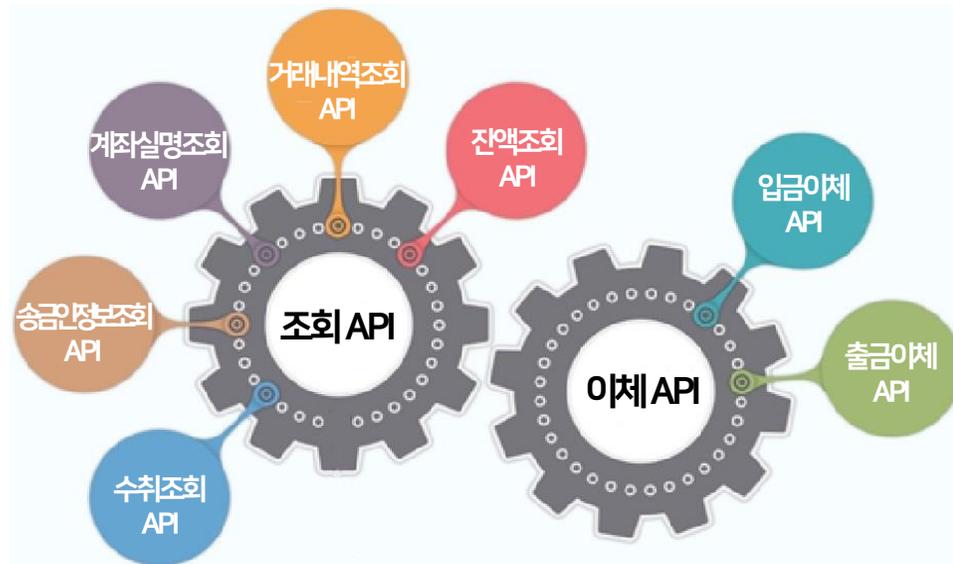
- ✓ 1. 참가기관 확대(제2금융권)
- ✓ 2. 보안성 강화

1 오픈뱅킹

핀테크 사업자와 금융회사가 금융결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
금융회사 등이 핵심 금융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 **표준화된 Open API**로
제공하는 **개방형 금융결제 인프라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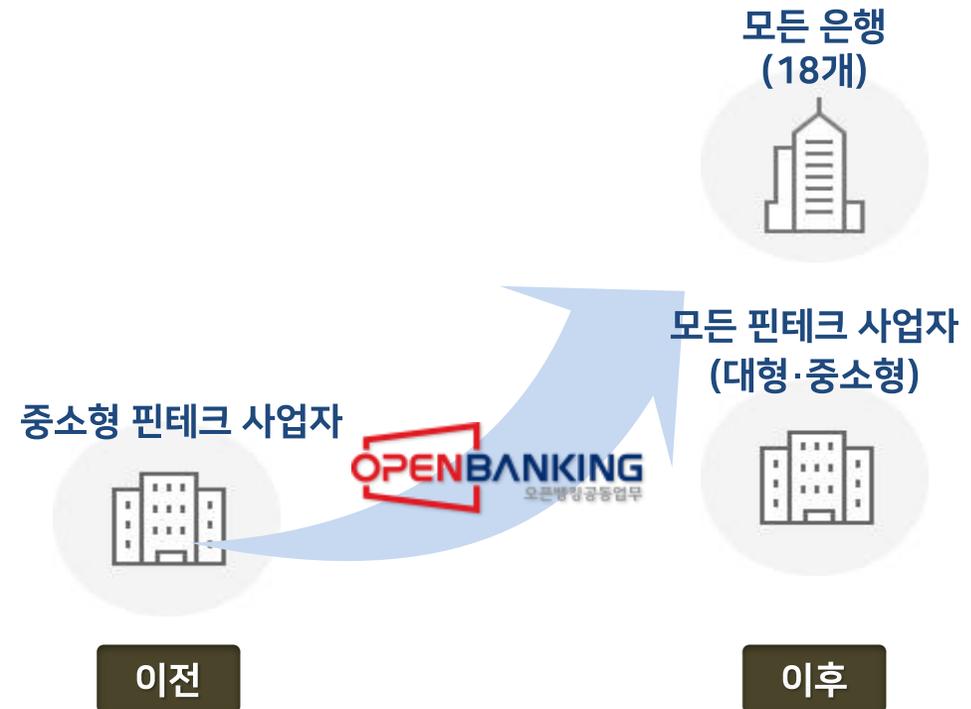
1 조회 및 이체 API를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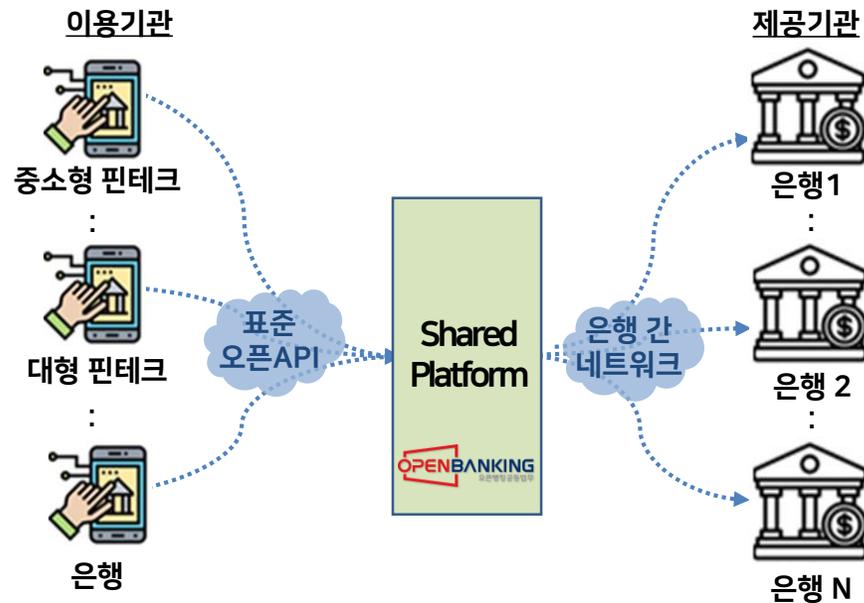
Open API의 조합(Mash-up)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가능

※ 영국, EU 등 해외의 경우, 조회 API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오픈뱅킹과 차이

2 모든 금융결제시장의 플레이어가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프라 구축



3 API 플랫폼을 공유하는 **공동형 (Shared) 플랫폼**으로 구축



오픈뱅킹 시스템 **단일접속**만으로
전체 참가 금융회사 접속 효과

4 신속하고 효율적인 API 인프라를 활용하여 **서비스 적기 출시 및 관련 비용 절감 가능**

이용기관

- **모든 은행의 고객**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
- 핀테크 및 은행 IT 자원의 **효율적 운영** 가능
- 서비스 **출시 비용 절감** 및 **출시 기간 단축**

제공기관

- **모든 이용기관**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
- API 제공을 위한 IT 자원 **효율성 확보** 가능
- 이용기관에 대한 **관리 부담 경감** 가능

2 운영 현황

그간의 운영성과

- 작년 전면시행('19.12.18.) 이후 가입자,계좌등록 및 API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**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**



영국의 오픈뱅킹 사례

- 영국은 서비스 개시('18.1월) 이후 **1년 8개월**이 지난 시점('19.9월)에 **일평균 650만건** 이용

구분	'18.1월	'18.5월	'18.11월	'19.5월	'19.9월
이용건수	서비스개시	3.3만건	58.3만건	192만건	650만건

* 출처 : www.openbanking.org.uk

이용 현황(가입자 및 계좌등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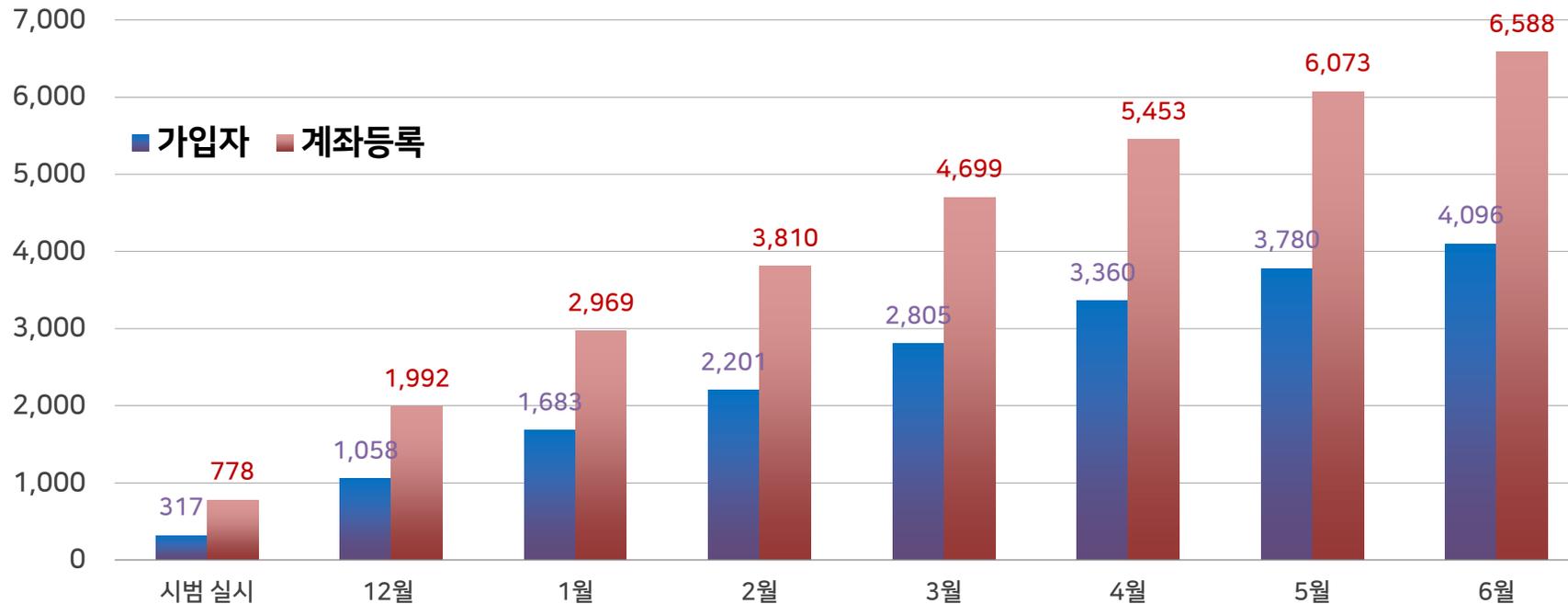


- 가입자 **4,096만명**, 계좌등록 **6,588만좌** (누적) ('20.6월 기준)

* 서비스별 중복제외 시 가입자 **2,032만명**, 계좌등록 **4,398만좌**

(단위:만건,만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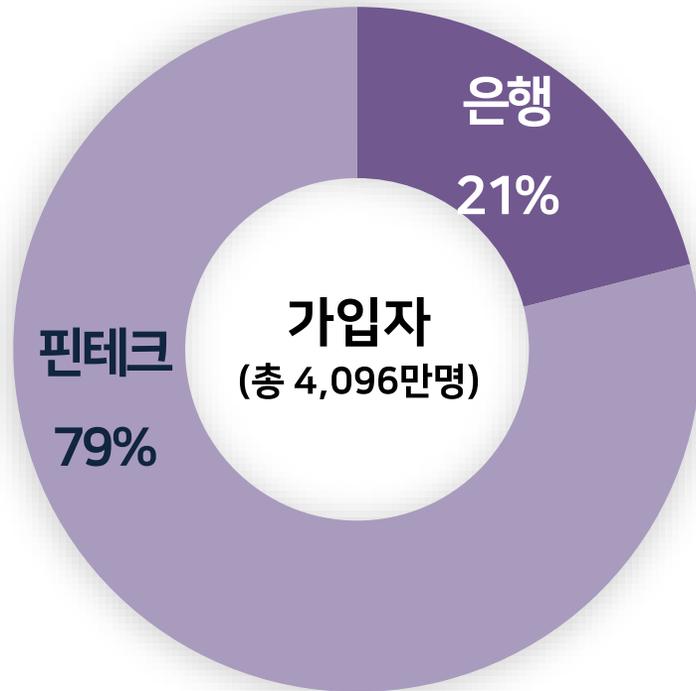
(누적가입자및계좌등록수, '19.10.30.~'20.6.30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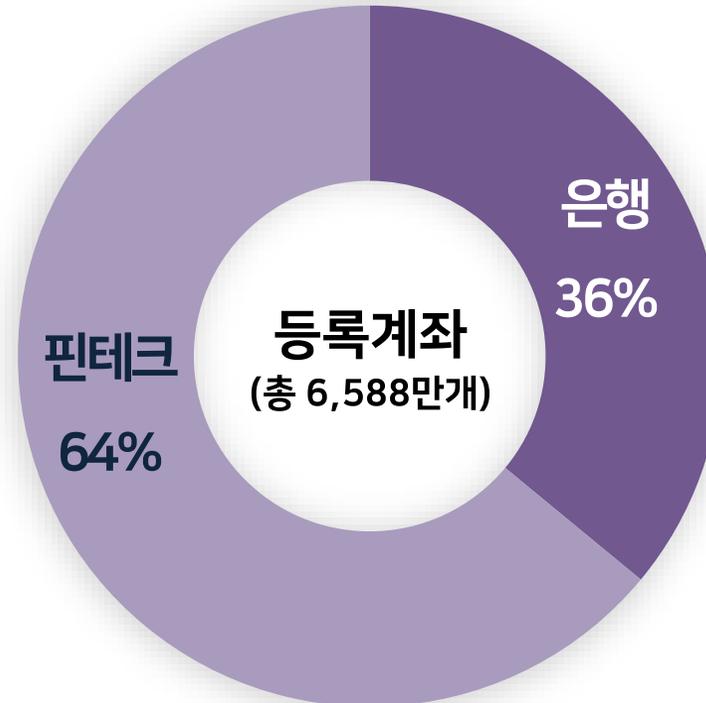
국내 경제활동인구*(2,821만명) 대비 약 72%가 오픈뱅킹 등록

* 출처 : 국가통계포털 KOSIS ('20.5월기준)

- 가입자 및 등록계좌 수 ('20. 6월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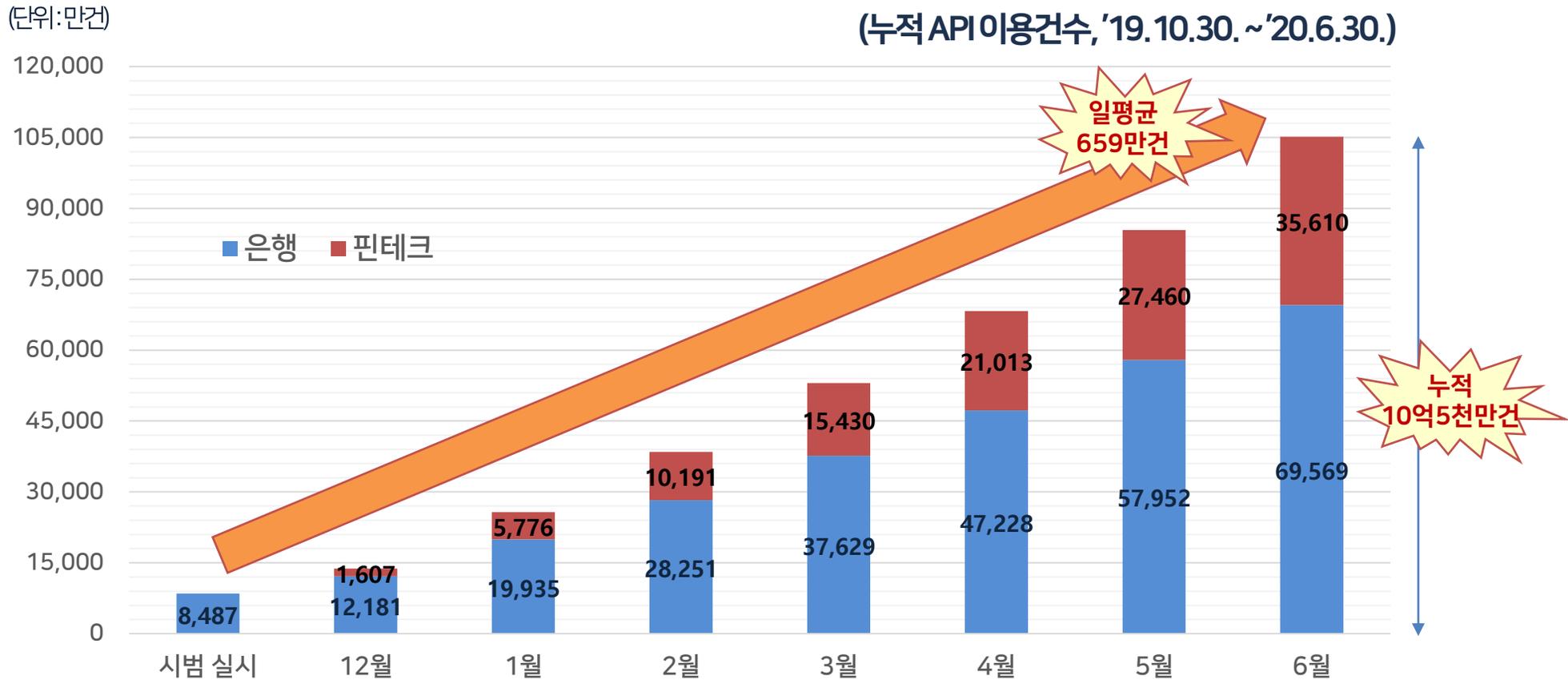
- 은행 : 8,507,819 명
- 핀테크 : 32,452,415 명



- 은행 : 23,708,358 개
- 핀테크 : 42,169,631 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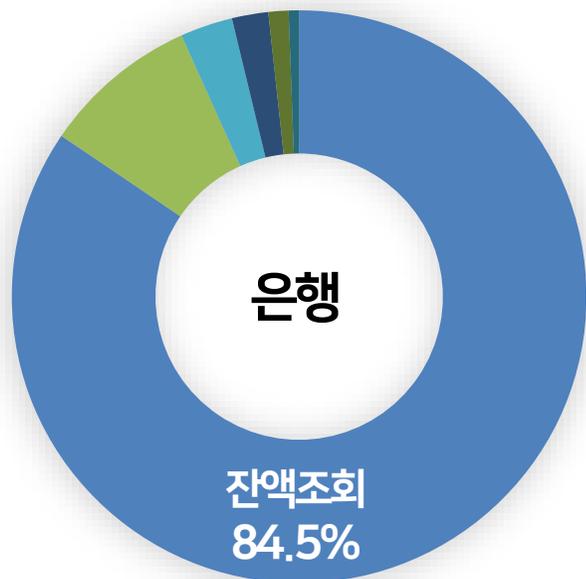
이용 현황(API 이용건수)

- API 이용건수 월간 **1억 9천만건** (일평균 659만건), 누적 **10억 5천만건** 도달 ('20.6월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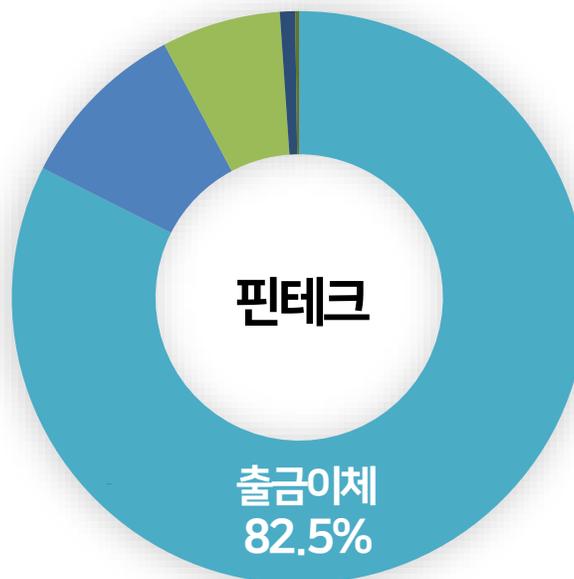


API 이용건수 연간 약 **20억건** 초과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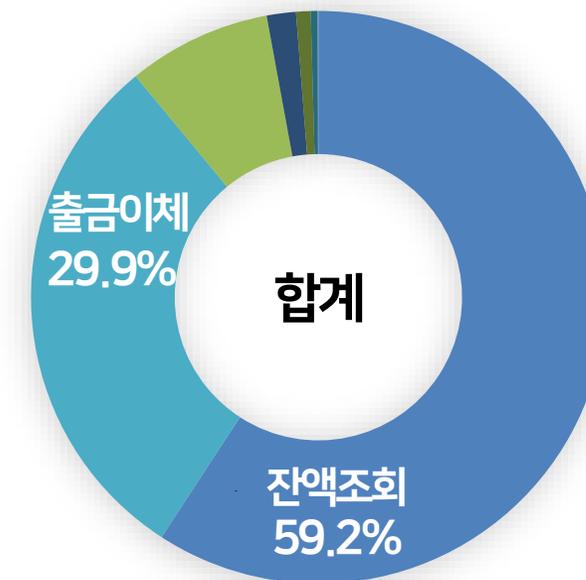
• 업권별 API 이용현황('20. 6월 기준)



- 잔액조회(84.5%)
- 거래내역조회(8.8%)
- 출금이체(3.0%)
- 계좌실명조회(2.0%)
- 입금이체(1.1%)
- 수취조회(0.6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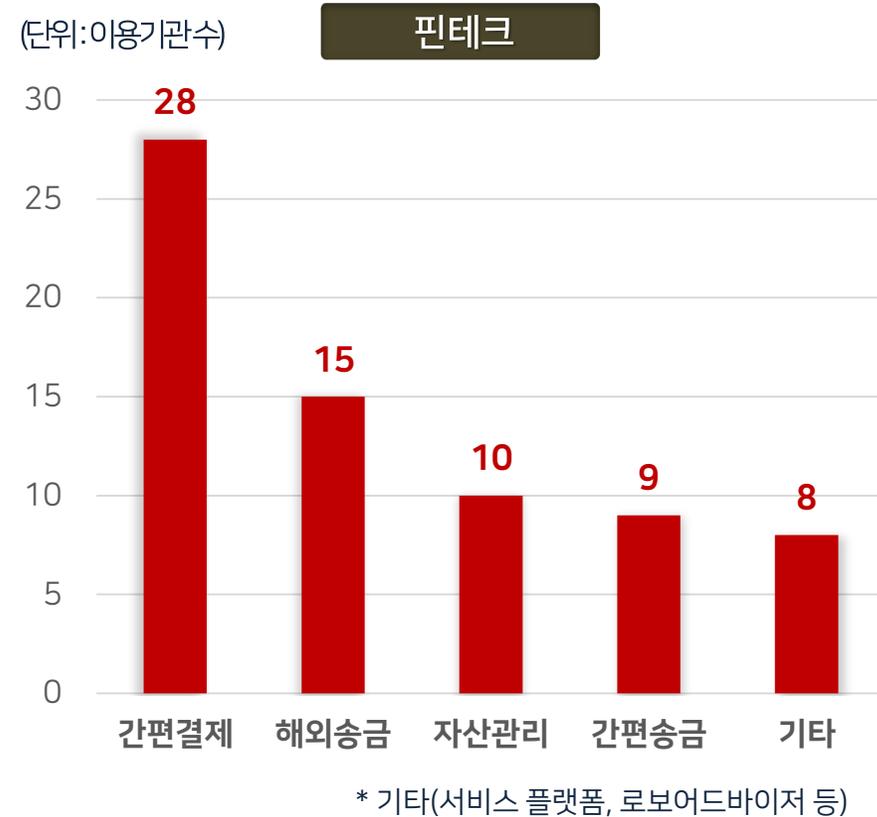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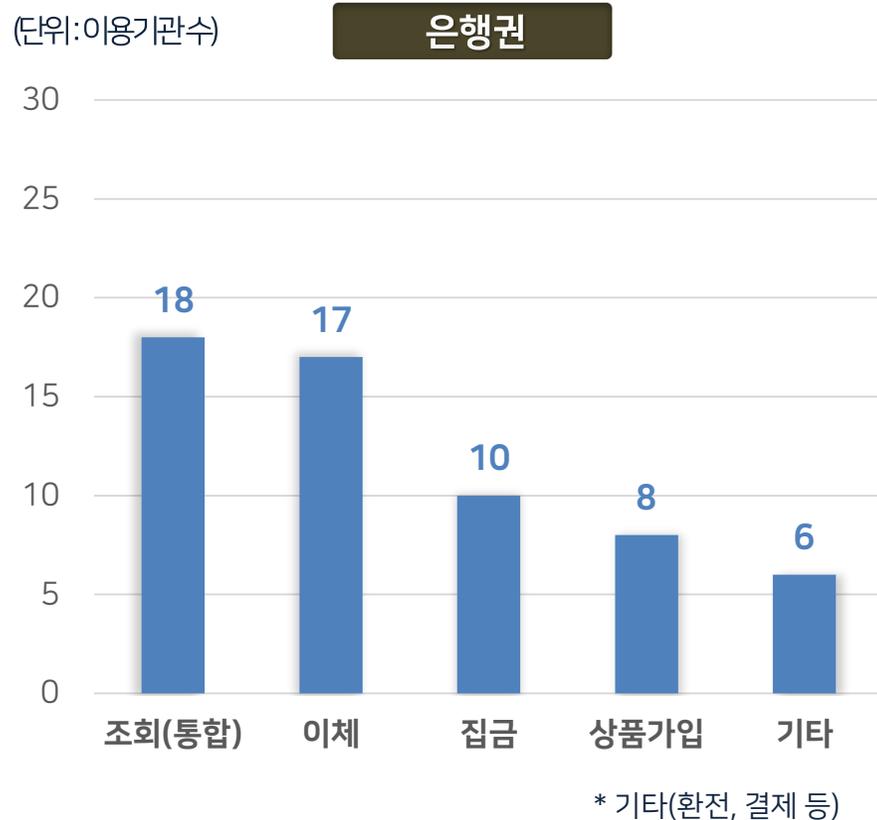
- 출금이체(82.5%)
- 잔액조회(7.5%)
- 거래내역조회(6.7%)
- 계좌실명조회(0.9%)
- 입금이체(0.2%)
- 송금인정보조회(0.1%)



- 잔액조회(59.2%)
- 출금이체(29.9%)
- 거래내역조회(8.1%)
- 계좌실명조회(1.6%)
- 입금이체(0.8%)
- 수취조회(0.3%)
- 송금인정보조회(0.1%)

* '20.4.22.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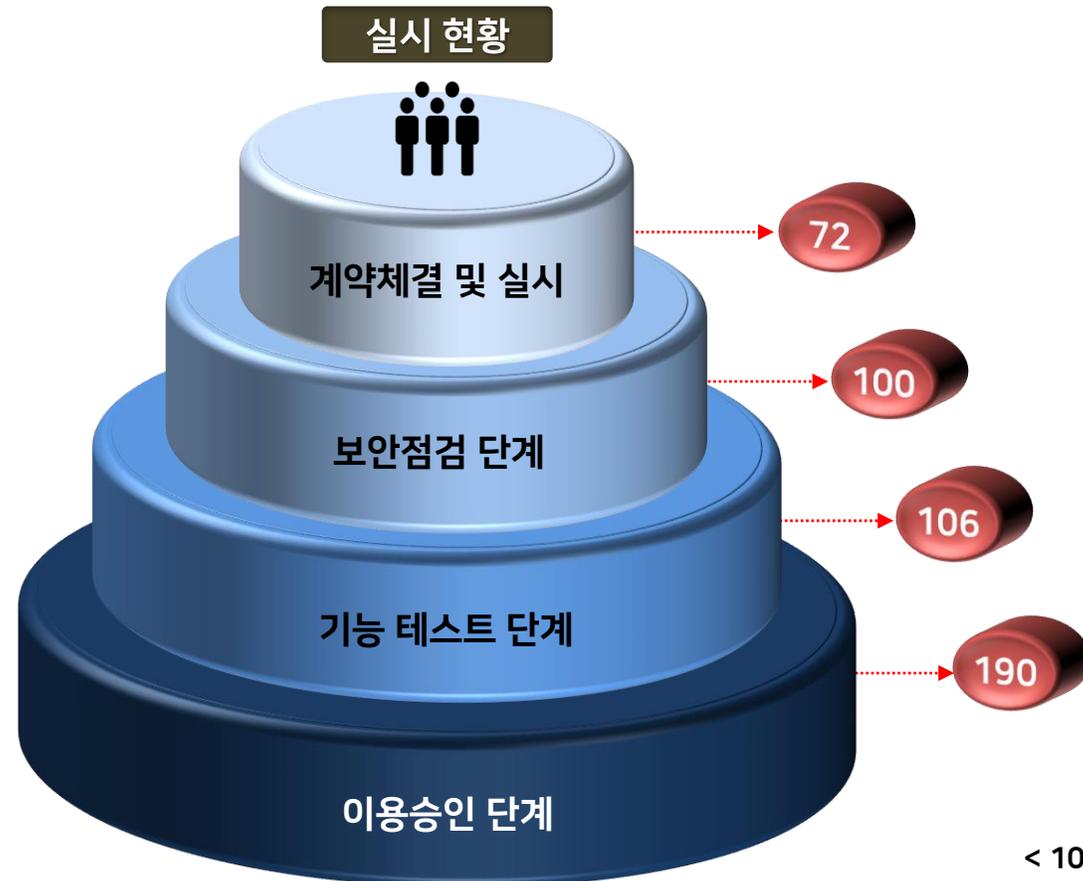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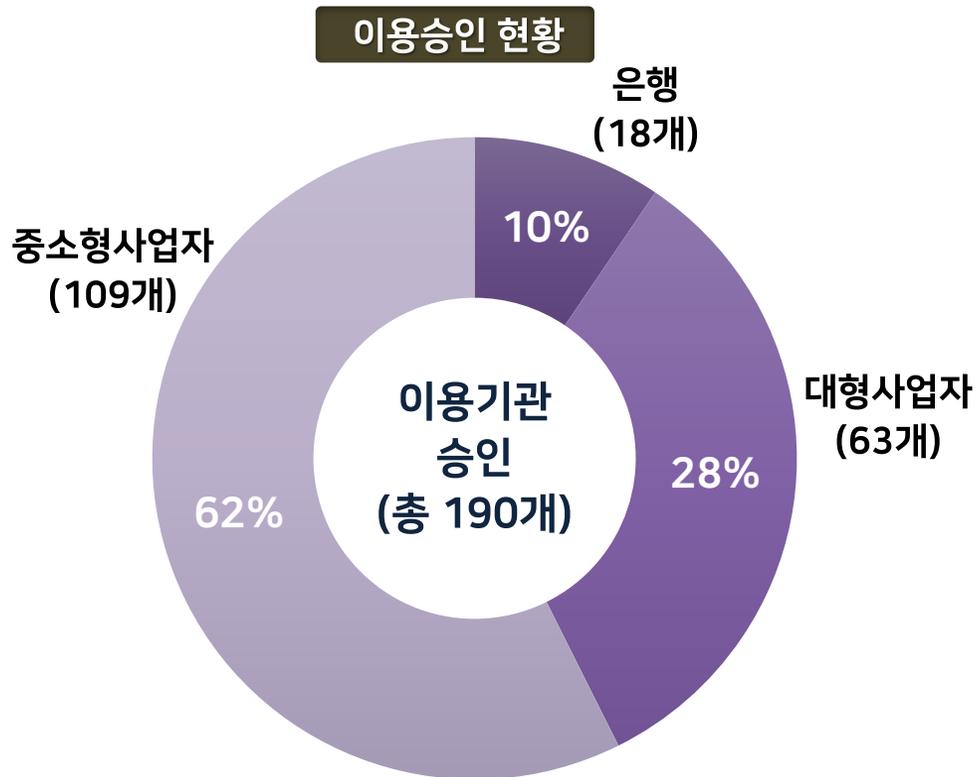
- **(은행권)** 타행계좌를 연계한 **뱅킹서비스(이체·조회)** 위주의 서비스 제공
- **(핀테크)** 선불충전을 활용한 **간편결제·송금**이나 **해외송금, 자산관리** 위주의 서비스 제공



이용기관 참여 현황

- 총 266개 신청업체 중 **190개** 이용 승인
- 현재 **72개 이용기관**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, **순차적으로 확대 실시** 예정

* 은행(18개), 대형사업자(●toss ●pay N Pay Finnq 등 28개), 중소기업사업자 (E9pay 등 26개)



핀테크 사업자

- **다양한 핀테크 사업자에 공정경쟁의 기회 부여**
*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도 오픈뱅킹을 통해 쉽고 빠르게 서비스 출시 가능
- **비용 절감으로 서비스 혁신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**
* 간편송금 토스, 5년만에 첫 흑자 (중앙일보, '20.5.7)
- **고객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용이**
* 로보어드바이저와 이체·조회 API를 연동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 출시 (핀트)

은행

- **종합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**
* 하나은행-토스 협업, NH농협은행뱅크샐러드 제휴 등 시너지 효과 창출 기회
- **기업고객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**
* KB스타플랫폼(간편결제)-BBQ페이 출시 협업 (KB국민은행, '20.5)
- **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규고객 유치 가능**
- **금융상품 개발, 유통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**

금융 소비자

- **다양한 금융 서비스 출시로 금융편리성 대폭 개선**
*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만족도 76.6%로 매우 높은 수준 (NICE 디안알)
- **소비자 선택권 및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**
*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카카오뱅크 계좌조회 서비스 출시 (뱅크샐러드, 토스 등)
- **국민생활 전반의 획기적 변화 기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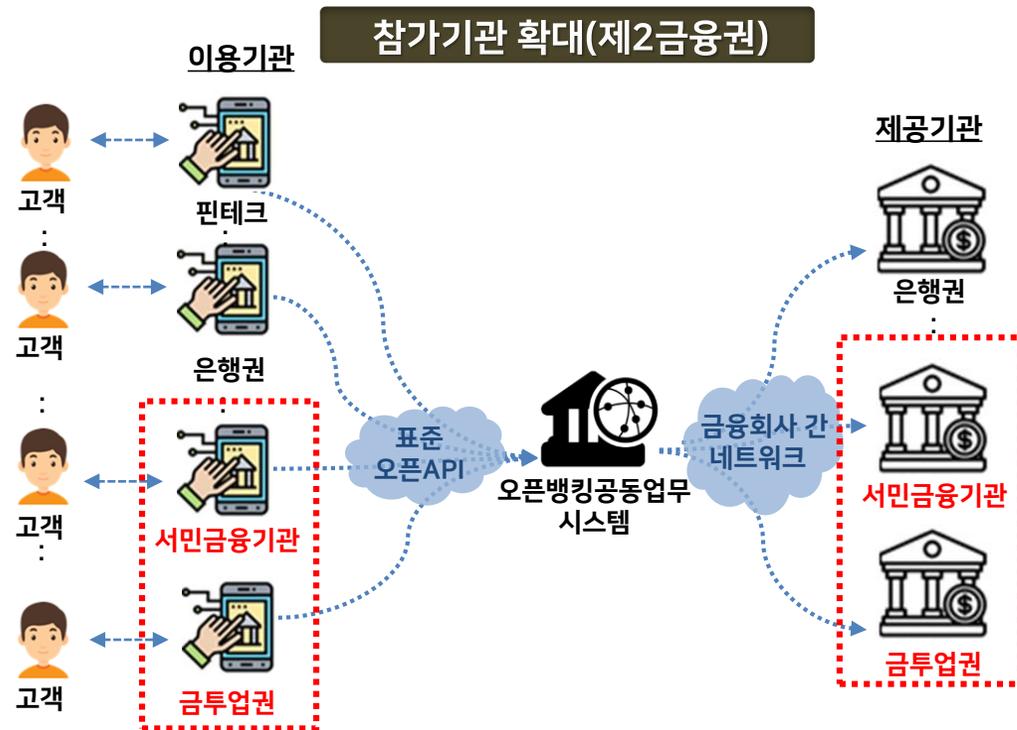
금융산업 전반

- **금융결제시장의 효율성 증대**
* 오픈뱅킹 이용기관은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참가은행(18개)과 연결되어 모든 은행의 결제망 이용 가능
- **전후방 연관 혁신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**
* 마이데이터, 마이페이먼트가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
- **금융시장 구조 재편 및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촉진**
* 한국은 생태계 모든 플레이어들을 오픈뱅킹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통합적 접근법으로 오픈뱅킹의 도입 속도를 가속화함 (英 The Banker, '20.3)

③ 현재 추진사항

참가기관 확대(제2금융권) : 금융기관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

- 제2금융권(서민금융기관, 금융투자회사)의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조회, 이체 등 서비스 제공 불가
- 참가기관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경우 **국내 계좌기반 조회 및 이체 서비스 전체 영역에 대해 오픈뱅킹 서비스가 가능**



■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가능 예금 현황 ('18.12월 기준)

구분	이용가능예금	점유율
은행	751,843	77%
제2금융권	222,431	23%
계	974,274	100%

* 단위 : 십억원

참가기관 확대 관련 향후 일정

- 대상기관(총 24개 기관)의 **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일괄 진행 중**
- 서비스 개시는 **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예정**

-서민금융기관(7)

:농협중앙회, 우정사업본부, 상호저축은행, 새마을금고, 신협중앙회, 수협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

-금융투자회사(17)

:교보, 대신, DB금융투자, 메리츠, 미래에셋대우, 삼성, 신한금융투자, SK, NH투자, 유진투자,
이베스트투자, KB, 키움, 하이투자, 한국투자, 한화투자, 현대차증권

※카드사의 오픈뱅킹 참가는 별도로 방안 협의 추진

7~8월

참가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**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절차 일괄 진행**

7~11월

전산개발 및 테스트, 관련 규정 개정 등

12월~

준비가 완료된 참가기관별로 **순차 실시**

- 안정적인 오픈뱅킹 플랫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**보안성 강화 노력**

기존현황및개선필요성

- 전금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성이 관리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,
자체전담반을 통한 보안점검결과제출 허용
- 이상거래탐지시스템(FDS)을 통해 실시간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
이용기관에 탐지내역을 이메일로 자동통지 및 이용기관 조치
- 보안성을 유지·강화하기 위해 이용계약체결 이후에도
지속적인 보안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

01

FDS 관리기준 강화

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사고
방지를 위해 FDS 조회 API
및 고도화 검토

02

전금업자 보안점검 강화

대량거래를 처리하는 전금업자의
리스크를 고려하여 자체점검 폐지
및 추가 보안점검 실시

03

상시모니터링 체계 강화

비용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
핀테크 사업자에 대해 상시
모니터링 지원체계 구축 검토

04

이용기관 정기관리 체계

이용기관이 보안성을
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관리
및 점검체계 마련

“감사합니다”